서퍼의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6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는 많은 서퍼들이 파도타기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운용 엉망

8억 지원받은 1호 기업 대기업에 인수·합병
전략펀드 투자 대상 분야 아닌 기업도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투자기업 사후관리 심혈”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한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운용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는 지난달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가 도외 기업들에게 투자되고 있어 제주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주도 미래 성장 먹거리의 토대를 구축하는 펀드 조성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지난 8월 24일자 1면**)한 바 있는데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를 통해 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투자 중심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9월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 미디어콘텐츠 등 디지털 융합산업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150억원 규모의 1호 전략펀드를 조성했다.

제주도 전략펀드 1호 투자기업은 S사와 K사 등 6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8억원을 지원받은 S사는 최근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호 전략펀드 운용사는 지난 7월 S사로부터 10억7000만원을 회수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설립된 K사는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로 이전해 현재 제주시내 한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나 1호 펀드 투자 대상인 디지털융합산업 분야와 거리가 먼 기업이다.

K사는 직원(24명)들의 근무지 및 생활 정주 여건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아동용 치아관리 관련 제품및 용암해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밝혔지만 용암해수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승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의원이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지원받은 이들 기업들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8억원이 투자된 회사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찾을 수 없었고 본사가 제주도인 다른 회사의 경우 공유사무실에 본사가 위치한 실정이고, 경영진, 관계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테크노파크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는 자유로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단순히 기업 지원을 넘어 제주형 산업 재편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투자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서귀포시 “FTA기금사업 재해예방 최우선”

추가 대상 182농가 지원 확정

서귀포시가 FTA기금사업 지원과 관련해 하우스시설을 후순위로 정하고,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최우선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감귤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농 작업 편의를 위한 자동화시설을 집중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부담 부족, 사업물량 축소, 일부 환급 등 2021년 FTA기금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별 대상은 ▷재해예방용시설(120농가·10억9800만원) 비상발전기, 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송풍팬, 방풍망시설 ▷자동화시설(58농가·8억3400만원)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사업(4농가·8300만원) 노후 하우스 개보수 등이다.

올해 FTA기금의 사업 대상은 14개 사업이며 지원 규모는 1680농가(588ha, 339대)·326억원이다. 백금탁기자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1년 주민자치대학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주민자치대학은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8주간 운영(총 31시간)한다. 교육과정은 지역 문화자원과 미래 유산,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예산제도의 이해 및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제도,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등 지역 문화·현안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신청은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원서는 (사)미래발전 전략연구원으로 팩스(756-3433), 이메일(jejufdi@naver.com) 또는 온라인(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로 변화해 가는 추세”라며 “제주도는 향후 주민자치시대를 견인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2021 제주愛 빠지다 ⑩ 변수빈 디프다제주 대표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바뀌나요?”

‘봉그깅’ 캠페인으로 3년간 해양쓰레기 3만ℓ 수거

변수빈 대표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6월 민주항쟁을 그린 영화 ‘1987’에서 여자 주인공(김태리 분)이 민주화 운동에 나선 대학 선배(강동원 분)에게 내뱉은 말이다. 이 대사는 일제시대의 ‘독립’, 6·25전쟁의 ‘조국 통일’, 1960~7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의 ‘민주화’를 이끈 당대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심심치 않게 들었을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에게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물음보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걱정이 가슴에 날아와 꽂힌다. 이제 청년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닌 취업과 결혼, 주거 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난민’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눈 앞에 일들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는 너무나도 멀고, 거대한 담론이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묵묵히 ‘행동’으로 실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청춘이 있다.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변수빈(31) 디프다제주 대표 이야기다.

부산 출신인 변 대표는 지난 2009년 스무 살 무렵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이다. 당시 부모님이 제주 이주를 결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인데, 이제는 토박이보다 제주를 더 잘 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한창 놀 나이에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의 매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프리 다이빙을 시작하고부터는 지근거리에 바다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해졌습니다. 이제 제주를 떠나서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변수빈 대표.

제주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변 대표에게 근심이 생겼다. 프리 다이빙을 할 때마다 목격되는 해양쓰레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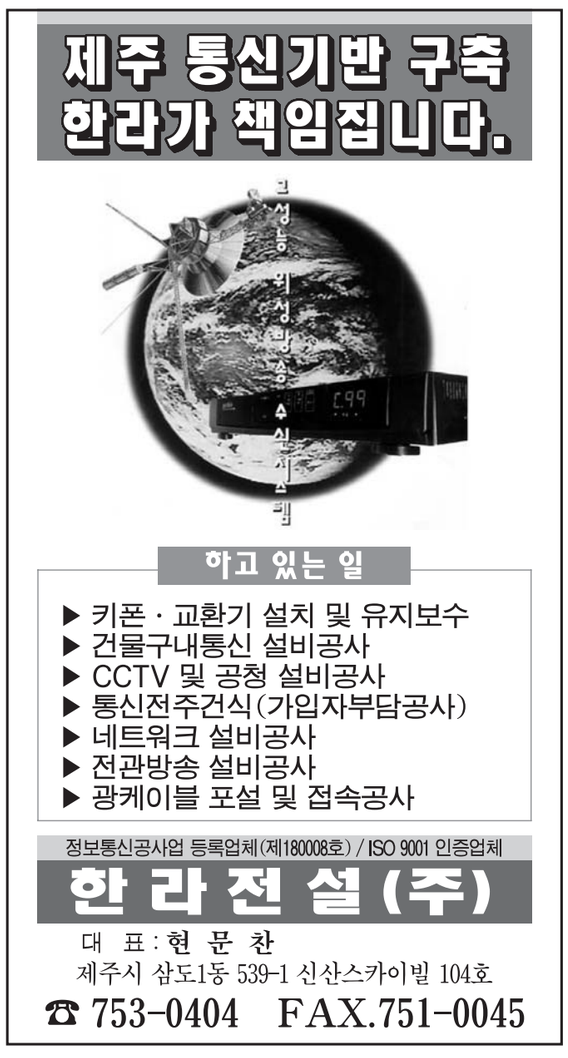
“친구의 잃어버린 다이빙 마스크를 이틀 후에 찾아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크에 물고기들이 여기저기 쪼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양쓰레기가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을 거듭한 변 대표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는 ‘문화운동’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줍다의 제주어 ‘봉그다’와 플로깅(Plogging·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의 합성어인 ‘봉그깅’ 캠페인이 탄생한 순간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 3년간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2만9170ℓ에 달했고, 이러한 공로는 ‘제28회 한라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말로만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말에 힘이 생기려면 내가 먼저 해양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3~4번 쓰레기를 줍고, 그 활동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 해양쓰레기 수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 대표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해양쓰레기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너 혼자 줍는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인기를 얻으려 쇼를 하고 있다” 등의 비소다.

“활동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지치지 않고 해양쓰레기를 묵묵히 줍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바뀌나요?”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